하나님 업신여기는 행동패턴

(사무엘하 14:25~33)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 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더라
27.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동패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동 패턴'
'능소화'라는 꽃의 꽃말은 명예, 영광입니다. 주황색의 꽃이 짧은 나팔 모양으로 피어나는 덩굴식물로 가지에 흡착근이 있어서 벽이나 다른 나무에 붙어서 올라가다보면 길이가 10m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꽃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능소화는 한자로 업신여길 능(凌)과 하늘 소(霄)로 '하늘을 업신여기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높다'는 의미에서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꽃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이 꽃에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기에는 10m도 넘게 높이 자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하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은 사람이 실제로 이런 것을 연관 지어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능소화는 기가 막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서 하늘을 업신여길 수는 없습니다. 가령 해바라기는 하늘을 향하지만 절대로 하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말처럼 하늘을 향할 때에 하늘 아래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높음을 경험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목표로 하던 학생이 연고대를 들어갔다면 여전히 서울대에 대한 존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서울대를 한 번도 목표로 한 적이 없이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서울대생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사람이라면 다른 대학에 들어갔을지라도 서울대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능소화는 10m까지 높이

올라가지만 하늘을 향하여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높아졌을 뿐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높아졌다면 능소화가 아니라 하늘을 경외하는 의미로 '경소화'라고 불리는 것이 어울릴 것입니다. 이러한 능소화의 이름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땅에서 멀어질수록 땅에 있는 것들은 작고 하찮게 보입니다.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이라고는 하지만 이 꽃을 의인화해서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작게 보고 업신여기는데 왜 하늘을 업신여기는 '능소화'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땅에 있는 것들을 업신여김이 곧 하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꽃의 이름을 지은 분의 세계관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늘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것 하나도 하늘과 무관한 것이 없고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세계관으로 이 꽃을 바라보자 높게 핀 능소화의 입장에서는 땅 근처에서 피어있는 다른 꽃들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낮게 핀 백합화조차도 그 모양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백합화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에 담긴 하늘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능소화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신앙의 복음적 사고에 입각해서 지은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는 범신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땅으로부터 높이 있는 능소화가 땅의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참으로 깊은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인간 중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경외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붙어 있는 풀 한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다. 반대로 능소화는 오히려 높아지면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작게 보는 것이 곧 하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철학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땅을 무시하고 땅을 무시하는 것은 하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더 깊이 말하자면 하늘을 무시하는 것은 하늘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능소화가 백합화를 하찮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백합화에 대한 뜻을 자기의 뜻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높아짐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곳에 자기나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조부에게로 도망치고 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요압의 지략으로 다윗 왕에게 명분을 제공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느닷없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온 이스라엘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끝도 없이 칭찬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한 상징적으로 압살롬의 머리털을 연말마다 깎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머리털이 하늘을 향한 신체상의 가장 윗부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머리털이 일 년에 200세겔로서 약 4.5kg정도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 년 동안 머리를 기르면 약 500g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압살롬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외가 쪽으로 인물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왜 갑자기 이러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압살롬의 보이지 않는 심리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안에 자기 같은 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던 압살롬은 능소화처럼 높아져있었는데, 이렇게 높아질 때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는 행동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능소화의 이름과 같은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체하여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하였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나타났단 밧세바-우리아 패턴인데 그것이 압살롬에게도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밧세바-우리아 패턴’이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것으로 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것은 하나님만큼 높아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올려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밧세바-우리아 패턴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일까요?

다윗은 마음에 밧세바를 품고 밧세바를 가짐으로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생길 것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업신여김은 하나님을 대체하여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셨던 것은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밧세바로 대체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밧세바를 마음에 끌어들이자 밧세바를 갖기 위한 추진력이 발동됩니다. 갖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하게 되고 우리아를 장애물로 여겨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밧세바-우리아 패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에게 세 얼굴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할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죄악을 저지를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전에 먼저 범했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관계에서 기쁨이 생기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므로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밧세바나 우리아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을 뜻을 다윗이 임의로 대체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높아진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대체시키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돈에 대한 욕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시키고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지만 돈이 주는 기쁨에는 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으시지만 자식에겐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대단하시지만 건강에 비할 수는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건강한 것보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시켜서 다른 것으로 기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아를 죽이는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극복하려합니다.
이렇게 밧세바-우리아 사건은 다윗에게만 일회적으로 나타났다가 끝난 사건이 아닌,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행동패턴입니다. 모든 인간은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체시키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들에 대한 뜻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다윗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할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체한 것 같은 과정을 압살롬도 그대로 밟게 됩니다. 압살롬이 귀환한 뒤에 2년이 넘도록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자 자숙하는 마음 대신에 불만이 생기고 모든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요압을 불러 다윗을 알현할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만 요압이 압살롬의 부름에 응하지 않자 그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런 행위는 외적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압이 오자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며 반성이 아닌 발악을 합니다. 요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 왕까지도 자기 마음에 맞추어 행동하게 하려는 성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 앞에 서는 것은 왕이 부를 때에야 가능한 것인데 왕이 나

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왕위까지 높아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압살롬의 주도면밀한 추진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는데 능소화가 높아진 것처럼 높아진 것입니다. 높아지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하나님을 대체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가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우리에게는 밧세바 대신에 돈이나 자식의 형통이나 무병장수나 대통령이나 장관자리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아와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면 죽이게 됩니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체시키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내 뜻으로 호불호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밧세바-우리아 행동패턴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비추어 보세요. 다윗의 밧세바가 지금 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또한 다윗의 장애물이었던 우리아가 내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려는 경향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밧세바가 예쁘게 느껴지고 그것이 마음이 들어오려 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다윗에게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아라는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시키고 업신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만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만이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의 태도는 땅에 있는 것들인 돈 자식 건강 승진 등을 통해 밝혀지고 드러납니다. 밧세바-우리아 행동패턴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내 마음 안의 자리에 밧세바로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 상태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능소화가 높아져서 땅바닥에 붙은 꽃들을 우습게 여겨 하늘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밧세바-우리아 행동패턴을 따라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리로부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